

고흥군 김 양식산업 효자 역할 '톡톡'

우량종자 개발 등 고품질 생산
군, 김 양식 기반사업 지원 효과
올해도 김 위판액 1000억 넘겨

고흥군의 김 양식 산업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흥군의 생김 위판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을 넘겼다.

고흥에서는 10만193ha에 10만1930척을 시설해 고품질 김 양식과 나로도수협 위판장에서 생김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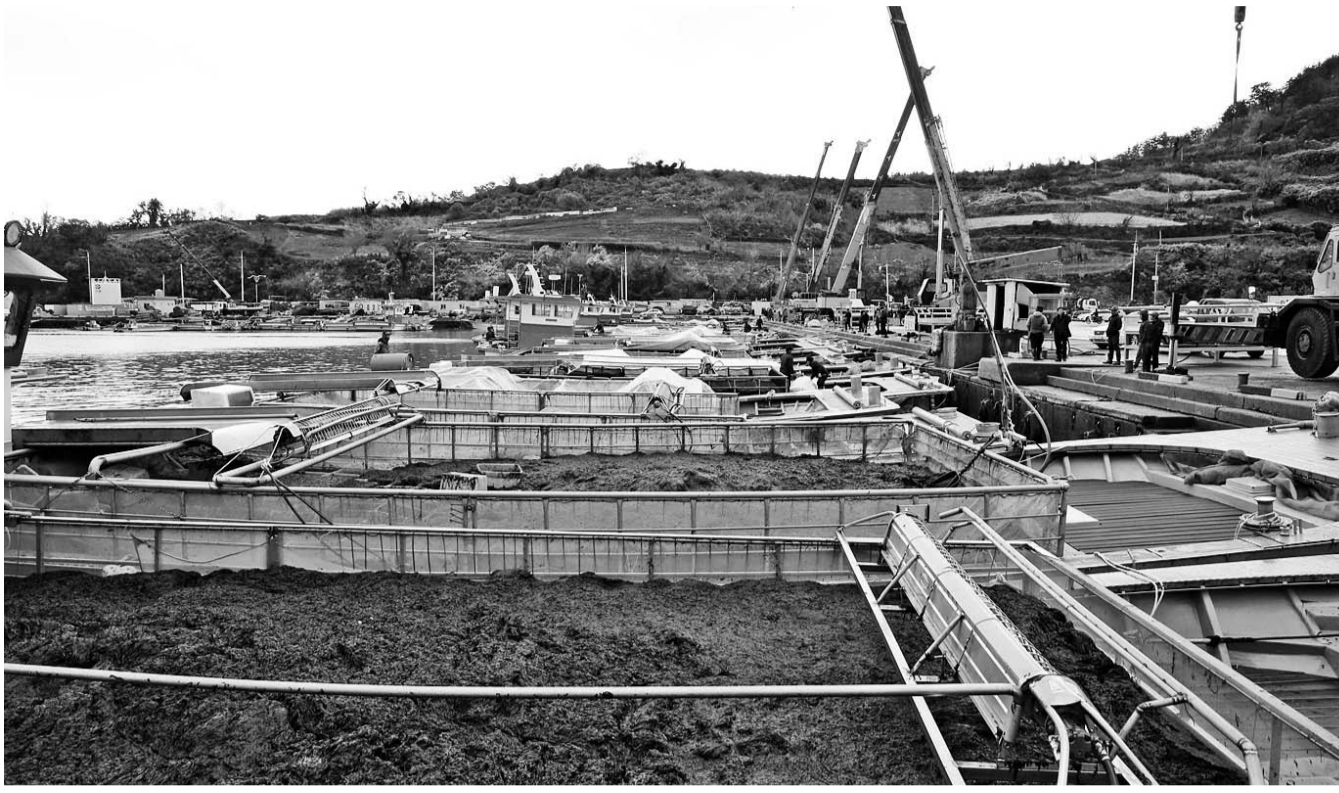
올해 4월 현재 목표량인 6만t을 초과한 12만t의 생김을 위판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을 돌파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양식 기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 생산에 적합한 수온 등 해양환경이 조성돼 김 작황이 좋았고 갯병 등 병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됐다.

고흥군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김 우량 종자 개발 및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양식 어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산 생김 생산은 해양 여건과 작황을



고흥군 230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생김 위판 모습. <고흥군 제공>

볼 때 이달 중순까지 생김 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김 위판액 또한 1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김 우량종자 개발 및 친환경 부표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의 사업비를 김양식 어가에 투입하겠다"면서

"전국 김양식 김 생산량의 80%를 목표로 김양식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고흥 녹동파출소·생활안전협, 치안활성화 캠페인

고흥 녹동파출소(경감 공석재)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이광욱)는 최근 직원과 회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구호 아래 공동체 치안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생활안전협의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플래카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녹동항 인공섬에서 쌍충사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면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노인학대, 교통사고 예방 전단지 배부했다.

공석재 녹동파출소장은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방법협력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안전한 녹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구례군, 신월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9억 확보 5개 마을 주민 식수난 해소

구례군은 구례읍 신월지구 주민들의 현안 사업인 식수난 해소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신월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신월지구는 구례읍 원방·신월리 일원의 원천, 병방, 신촌, 월계·월암 총 5개 마을 326세대 59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수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 이용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신월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구례읍 오봉마을에서 월암마을까지 지방상수관 7.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일공급

량은 170t이며 2020년에는 안정적인 먹는 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산하공무원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먹는 물이 지역주민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므로 이번 신월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확보를 토대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모든 군민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구례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치매안심마을' 1호 석곡면 덕동리서 현판식

곡성군이 치매안심마을 1호로 석곡면 덕동리를 지정하고 최근 사업설명회와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마을의 핵심 사업은 마을회관을 마을 거점 치매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거점 치매 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치매 예방교실, 인지 강화교실, 인지 재활교실, 가족교

실 등을 운영한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보호 물품도 제공하고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등록, 배회 인식표 배부, 배회감지기 보급 등을 지원한다.

국가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 가정에는 주 2회 치매 안심 관리사를 파견, 일상생활·인지 활동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곡성군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치매 환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세계장미축제' 흑자액 전국 1위

2017년 4억 1400만원 기록... 지난해 유료 관광객 27만명

해마다 5월에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전국 지역축제 중 흑자액 1위(2017년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결산한 2017년 전국에서 열린 지역축제는 472개 중 흑자를 내는 축제는 고작 4개밖에 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흑자액을 기록한 축제는 전남 곡성군에서 열고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로 4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곡성 장미축제는 2위인 전남 함평 국향대전 1억610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앞섰다.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곡성 장미 축제에는 2017년 24만5118명보다 많은 26만9773명의 유료관광객이 입장했다.

곡성군은 2005년부터 운영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기차마을 내에 '1004 장미공원'을 개장

했다.

1004 장미공원이라는 이름은 '천사'들의 정원이라는 뜻과 1004종의 다양한 장미가 식재되었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오는 5월 17-26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곡성군은 5월 중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다른 지역 장미축제와 차별화하고자 행사 주제를 기존 '향기, 사랑, 꿈'에서 '꿈의 로즈 페스티벌'로 변경했다.

행사 프로그램도 '로즈 컬러런', '캠성파워 청춘남녀 연인만들기' 등을 보강해 젊게 개선했다.

곡성군 축제 담당 팀장은 "올해 장미축제는 곡성을 처음 찾는 관광객에게는 놀라움을, 재방문하는 이들에게는 감동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QR 코드와 함께: **예농**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내달 3일 개막

보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보성읍내와 판소리성지 등에서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존 체육관에서 하던 행사를 보성읍내의 특설무대로 옮겨, 우리나라 최고의 정통 판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매년 10월 열렸던 대회를 5월로 앞당기고 전국 명창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시상금도 2배 인상했다.

전국판소리 명창부 대상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4000만원이 수여되고, 고수경

연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시상금 1000만원,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음민 선생, 조상현, 성장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이다.

군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소리축제와 전국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30일까지 보성문화원에 참가신청서를 내야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맞춰주기 마세요
맞춰주세요
각면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